

李 대통령 취임 6개월

‘쇠고기’로 날새고 ‘촛불’에 데이고

정치서 외교까지 총체적 난맥...리더십·민심 회복이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25일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하면서 야심차게 출렁했지만 지난 6개월은 뼈아픈 실패의 연속이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할 정도의 난맥상을 보였다.

쇠고기 파문과 촛불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고비였다. 그러나 촛불의 실체는 이 대통령 집권 이후 누적된 민심의 이반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강부자·고소영 내각’ 비판에서 알 수 있듯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인사 파문과 경제 위기에 대한 안이한 대처, “이명박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조합된 분출구였다.

여기에다 국민과의 소통 부재, 당청간 불협화음, 외교 혼선, 대북관계 및 외교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린 것이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부처 폐쇄 및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공직사회까지 돌아서면서 이명박 정부는 고립무원의 형국에 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입기 완수’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급기야 취임 6개월도 되기 전에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10% 중후반까지로 급전직하했으며 이 대통령은 두 차례나 국민 앞에 머리를 숙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성찰을 거듭했다고 한다.

성찰 끝에 나온 이 대통령은 쇠고기 추가 협상과 청와대·내각 진용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쇠고기 정국의 파로감과 겹쳐 정국 운운에서 반전의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재출범을 선언했다. 국정 운영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법·원칙 준

수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국정 현안을 에둘러가기 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앞길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국정 장악을 위해서는 리더십 회복이 최우선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

내·외생 변수가 합쳐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각종 개혁 과제가 야당 및 이해 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표류할 경우 리더십에 다시 한번 생체기를 낼 가능성이 크다.

쇠고기 파동을 거친 민심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믿음보다는 일단 “일단 지켜보겠다”는 태세다.

대북·대일 관계도 간단치 않은 과제다. 금강산 관광재 폐쇄사건 등을 둘러싼 남북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떠안겨 될 부담은 부담대로 남게 된다. 독도 파문 역시 주변 4강 외교의 근본을 어그러지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왼쪽)이 23일(현지 시각)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올드 스테이트 캐피탈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신의 러닝 메이트인 조 바이든 상원의원(델라웨어주)과 함께 등단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오바마 러닝메이트  
바이든 상원의원 지명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3일 오후 (현지 시각)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정식 지명하고 첫 공동유세를 벌였다.

오바마 의원과 바이든 의원은 앞으로 한 조를 이뤄 70여일 남은 대선기간에 공화당 존 매케인 진영을 상대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매케인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주 29일께 러닝메이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는 이날 자신이 19개월전 당내 대선후보 경선출마를 선언했던 스프링필드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이든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 격상

후진타오 방한...올림픽 폐막 후 첫 해외순방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서울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5월 말과 이달 9일의 1, 2차 베이징 회담에 이어 양 정상이 불과 3개월만에 3번이나 만나는 것으로, 이는 한·중간 한층 긴밀해진 관계를 단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24일 밝혔다. 특히 후 주석이 베이징 올림픽 폐막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재임기간 중 두번째 방한하는 것이어서 양국 정서간 개인적인 우의 및 신뢰를 돈독히 하고 향후 상호 방문외교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한중수교(92년 8월24일) 16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 날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1차 회담의 성과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안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공조, 실질적 교류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

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눈 뒤 그 결과를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한다.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은 우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양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정서간 교류 활성화, 외교안보 분야 대화 및 교류 확대, 외교부 간 고위급 전략대화 연내 가동,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 군 당국간 상호 연락체계 강화 등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국이 진행중인 공동조사를 토대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편 오는 2010년까지 한·중 교역규모를 2천억달러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저우에 있는 주한 중국대사관의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연합뉴스

소말리아 한국인 사업가  
총상 입고 피랍 위기 모면

최근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소말리아에서 한국인 사업가가 피랍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과정에서 격투를 벌이다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오전 소말리아 북동부 폰트란 드주(州) 주도 가로웨에서 김영호(39)씨가 무장 민병대원들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소말리아의 라디오방송 ‘가로웨’는 앞서 2대의 차량에 나눠뿜 무장 민병대원 7~8명이 혼자 거리를 걷던 김씨를 납치하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오른쪽 다리에 총을 쏘고 전했다.

김씨는 수산업 관련 사업을 위해 12일 전에 이 곳에 도착, 혼자서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슬람 반군은 지난 20일부터 남부 항구도시 키스마유에서 벌어진 친정부 의용군과의 교전에서 승리해 이 도시를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70여명이 사망하고 170여명이 부상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활동 폭 넓히는 ‘노무현의 사람들’ 기념사업·정치 참여 활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5일 퇴임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각계각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 불개입’ 원칙을 역설하고 있지만 주변 참모들을 중심으로 친목에서부터 연구, 정치 활동을 위한 각종 모임이 꾸러지며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중심에 둔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

우선 정치권 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친 노 진영은 민주당의 지난 7·6 전당대회에서 안희정 최고위원을 탄생시키는 자격을 발휘

했고, 원내만 해도 이광재, 서갑원, 백원우, 송민순, 이용섭, 조영택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의정연구센터를 만들어 활동했던 17대 국회 때와 비교해 계파색은 얽여졌다는 평가다.

정치 진출을 노리는 인사들의 모임도 꾸러질 전망이다.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승용 전 홍보수석 등 정치권 입성에 관심을 둔 청와대 참모 출신 30여명이 26일 봉하마을을 방문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이들은 모임을 ‘정정화’라고 명명하고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참여정부의 공

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참여정부의 정신을 살려나가자는 취지에서 연구나 기념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성경룡,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성환 전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주축인 ‘미래정책연구원’ 설립작업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의 정책개발에 직·간접 참여했던 인사와 학자를 위주로 구성된 이 연구원은 최근 발간총회를 한데 이어 9월중 공식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념사업을 위한 재단 설립을 준비중이다. /연합뉴스

## 각내영교육학

9-10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수강생 모집!

**개강 9월 5일** ☎ 529-0090

## 교원임용문제설명회

유·초·중등 임용고시의 모든 것!

###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스피치 리더십 과정

과정명	스피치 리더십 과정
대상	경영인, 공무원, 교사, 학부모 등
기간	2008. 9. 15(월) ~ 10. 15(수) 총 4주
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061-270-1111

---

### 경영인(CEO)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경영 지도자 과정

과정명	경영 지도자 과정
대상	경영인, 공무원, 교사, 학부모 등
기간	2008. 9. 15(월) ~ 10. 15(수) 총 4주
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061-270-1111

### 한문지도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구분	일시
개강일	2008. 9. 15(월) 9:00
종료일	2008. 11. 15(일) 18:00
수강료	2008. 9. 15(월) ~ 10. 15(수) 1,500,000원
수강신청	2008. 9. 15(월) ~ 10. 15(수) 18:00

문의: 061-270-1111

### 한문지도자격 연수생모집

2008년(제7기)

**연수일정**

- ▶ 9월 15일(월) 9:00 ~ 18:00
- ▶ 9월 22일(월) 9:00 ~ 18:00
- ▶ 9월 29일(월) 9:00 ~ 18:00
- ▶ 10월 6일(월) 9:00 ~ 18:00
- ▶ 10월 13일(월) 9:00 ~ 18:00
- ▶ 10월 20일(월) 9:00 ~ 18:00
- ▶ 10월 27일(월) 9:00 ~ 18:00
- ▶ 11월 3일(일) 9:00 ~ 18:00

**입석교부 및 접수처**

061-270-1111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